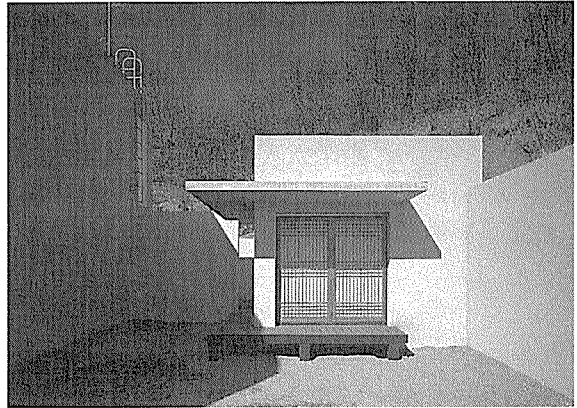


이상한 집에 스며든 자의식적 검박성(儉朴性) Self-conscious Frugality Immersed in a Strange House

이종건/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by Lee Jong-Gun



참 이상한 집이다. 길다란 복도에 방들이 주머니처럼 달아 붙어 있다. 나 아닌 세계의 신체를 한껏 껴안아 그 부딪힘의 감각에 전신을 온통 노출하고 싶은 듯, 덩어리들이 꼬치에 끼인 채 산등성이에 산적처럼 놓여있다. 어찌 보면 건축이라는 자아(自我)의 핵에 집착한 고집 덩어리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그래 늘 빼앗기만 하던 바로 그 자연과 마침내 화해하고 있는 몸짓인 듯하다. 그런데 달리 보면 건물이라는 그 운명의 탓으로 오로지 주어진 한계 안에서만 허우적거려야 했던 자연에 대한 그 끓어오르던 탐욕을, 사지(四肢)를 있는 데까지 벌려 드디어 해갈하고 있는 듯도 하다. 이상한 집이다. 주변의 요상스런(?) 집들과 비견할 때, 그리고 흔히 보고 생각해 온 우리의 집들에 견주어, 도무지 집 같지가 않다. '언덕 위의 하얀 덩어리'는 지붕뿐 아니라 집에 관한 상식적 기호들을 온통 소거해버려, 마치 어느 사설 미술관인 듯하다. 고고한 순백이 그렇고, 철저한 직각체계가 그렇고, 몸체와 어울리지 않는 도열해 있는 철골 격자 틀이 그렇고, 기차같이 기다란 반복된 덩어리 몸짓이 그렇다.

What a strange house. Rooms, as if they were pockets, are hung along a long hallway. As if to expose the feel of impact caused by the collision when caressing the body of an outerworld, masses are layed fully exposed along the mountain ridge. In a way it seems it has emancipated from an obstinacy, the obsession of clinging on to the nucleus of architecture, and at last reconciled with nature, the plunderer. But in other ways, its destiny to struggle in the boundaries as a building and the lustrous thirst for nature seems to have been cooled off by spreading its limbs as far as possible. Strange indeed. Compared to the surrounding awkward houses and the houses we normally confront and imagine, it does not seem like a house in the least. The "white mass upon the hill" has utterly deleted not only the roof but the usual codes regarding a house. Its lofty pure white, firm perpendicular system, the steel lattice frame lined up discordantly with the whole system, and the elongated, repeated masses actually suggest some kind of a private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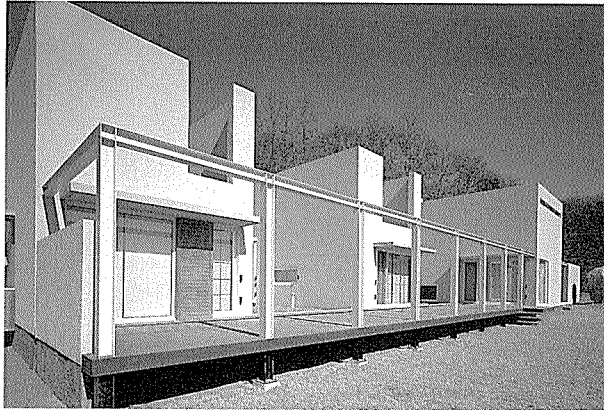
What a strange house. Yi-Rem-Si(the signifier) suddenly encounters the alien soul, Faust, embodied by Um-Jik-

참 이상한 집이다. 이름씨는 움직씨가 체현(體現)하는 이방인의 정령, 파우스트를 '줄지에' 만난다. 움직씨에 따라 수평으로 터져 확장하는 우리 공간의 살이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어디를 가나 깊이를 투시하는 눈으로 인해, 이름씨는 공간을 포착하고 공간을 점령하고 공간을 조작한다. 움직씨는 영혼을 삼키고 이름씨는 그 속에 자신을 소멸한다. 불같은 눈, 그것이 확장하는 깊이의 긴장, 그리고 그 깊이를 잠식해 들어가는 움직씨. 그것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인가? 파우스트의 꿈은 어디까지 가서야 멈출 것인가? 공간을 정복해 온 인간의 역사, 그 궤적의 갈피 갈피에는 감미로운 음모가 복병처럼 숨어 있다. 거주자에게 돌려 준 빈터며, 사무라이의 정적이며, 폭포의 정열이며, 음습함의 비움이며, 선과 면의 유희며, 플라톤의 매스며, 기하학의 구성이며, 선비의 고매함이며, 조선의 방문이며, 아! 수많은 이방인들의 숨소리들이 뒤섞여 육체를 희롱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공간을 깊이로 소유하기 시작했는가?

참 이상한 집이다. 단순한 덩어리 속의 예기치 못한 화려함의 복병은 육신을 떨게 하고, 빈자(貧者)라는 수식

Si(the signified). The flavor of our traditional spacing which explodes and expands horizontally by Um-Jik-Si cannot be seen. Instead, Yi-Rem-Si with eyes that can perceive depth wherever it stands, seizes space, occupies space, and manipulates space. Um-Jik-Si swallows the soul and Yi-Rem-Si dispenses itself in it. Fiery eyes, the intensity of depth it expands and that depth being invaded inch by inch by Um-Jik-Si. What makes of it? Where will it be for Faust's dream to come to an end? Among the pages of the history of men, men who have been conquering space, a sweet and seductive plot has been hidden as if an ambush. The empty lot returned to the inhabitant, the silence of a samurai, passion of the falls, the damp emptiness, the play of lines and planes, platonic mass, the geometrical composition, the loftiness of a gentlemen, the visit of Chosun, all the gasps of numerous aliens are blended, mocking our flesh. When did we start to possess space in the form of depth?

What a strange house. The unexpected ambush of fanciness inherent in a simple mass causes the body to shiver and the extravagant taste of a bourgeois concea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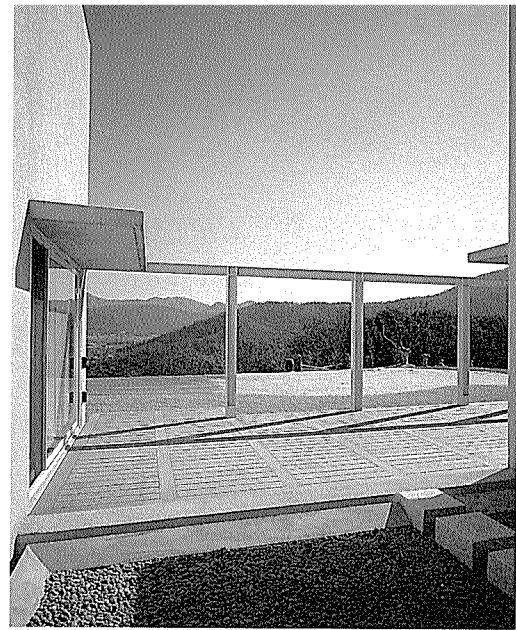


어로 은폐한 부르주아의 고매한 취미가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시방마다 풍광이 액자에 담기고, 보이는 비움은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 텅 빈 벽에 실루엣처럼 붙은 계단과 수직 원통의 아름다움. 가느다란 하늘 틈새 빛과 눈 아래 잘린 바깥 세계들. 어디를 둘러보아도 빈틈을 찾을 수 없다. 졸스러움은 정녕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 바친 수고가 그 얼마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겪어야 할 앞으로의 수고는 또 그 얼마인가? 나는 지금 빈한(貧寒)함으로 위장하고 있는 호화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편리한 듯 뽐내는 이면의 불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참 이상한 집이다. 삶을 담은 건축이 아니라 건축을 담은 삶이란, 그리고 거주할 자가 아니라 거주방식을 정해 준 자가 존재하는 집이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집이 예술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은 얼마나 이상하며, 건축가의 활동의 역사가 여전히 '자의식 강화'의 경로를 밟고 있는 것은 또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이제 나는 승효상이 아니라 승효상

under the name of poverty fogs the mind. The beautiful sceneries are enclosed and framed in every direction and the visible emptiness is draped with dazzling clothing. The stair and the vertical cylinder attached to the vacant wall, as if a silhouette, emanates beauty. The sky light peeps in from a narrow opening and the outside world is cut off below sight. Not one trace of a flaw can be found, anywhere. Truly no poorness seems to exist here. How much effort was needed to accomplish all this? But still, how much more effort will be needed because of the deficits from what has not yet been found? Here, I am talking about the splendor disguised in indigence. The inconvenience underlying in superficial comfort.

What a strange house. Life accom-modating architecture, not architecture containing life. Isn't it strange that the house exists for the one who determines the way of living, not for the inhabitant? The situation that a house has become the subject of art and the history of the architect's activities is still following the steps to 'consolidate self-consciousness' is awkward indeed. Now I meet the codes of Seung, not the person



의 기호를 만난다. 그가 만든 건축은 단번에 알 수 있다. 건축가가 양식이 아니라 기호가 된 사실, 더구나 그것을 살림집에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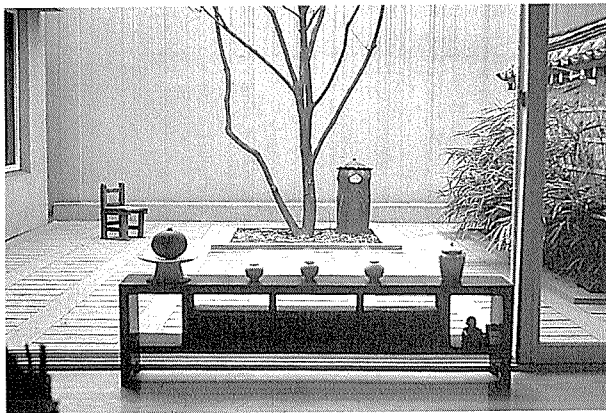
참 이상한 집이다. 자연을 한껏 품은 이 집에서, 바로 그 자연을 두께 없는 껍질로 만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사방을 자연으로 둘러친 이 집에서, 자연의 속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참으로 근사한 풍광을 향해 열어 둔 이 집에서, 그 풍광의 그리움과 애절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알게 보고도 깊이 느끼는 '마음의 자연', 그것이 피워 올리는 정감의 연기를 바로 이 집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열어둬으로써 오히려 닫아버리는 이 이상함. 그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집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선 그것은 은신(隱身)의 터일 것이다. 여기서 '신'이라 함은 우리의 몸뚱어리요, '은'이라 함은 숨기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집에서 은신하는 것은, 내충외간(內充外簡)한 예(禮)를 이루어 경(敬)을 통해 존재의 고향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집은 바로 그렇기

Seung. His works are surely recognizable. The fact that an architect has become a code, not a style, and especially to find that in a house is bizarre.

What a strange house. How strange that the house embracing nature meets that nature in a form of the most thinnest shell. How strange that the house surrounded by nature in all directions, cannot see through that nature. How strange that the house open to such beautiful scenery cannot feel the affection and sorrow that lies in it. How strange that the 'nature of spirits', which is felt deeply even when shallowly seen, cannot be found. The scent of affection which should arouse is missing here. This awkwardness of opening, that actually closes and shuts off. What on earth is its identity?

What is a house? Above all it would be the place of concealment. In other words, it is needed to hide our bodies. Why do we hide in these houses? To find the origin of our existence through respect and that, by accomplishing the courtesy of inner fulfillment with simplified images. Isn't that the reason why a house always reveals itself as a sophisticated y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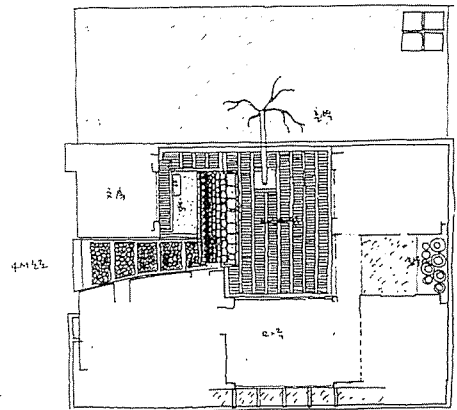
수졸당

때문에 늘 심간(深簡)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집이 물리적인 형태를 넘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러한 존재의 비밀일 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집은 세계를 바라보는 통로며 자연을 대하는 문턱이 아닌가? 세상살이에 지친 육신을 거두는 곳도,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곳도, 잊었던 저 너머의 세계를 떠올리는 곳도, 그리하여 마침내 삶의 진정성(眞正性)을 발견하는 곳도 바로 집이 아닌가? 집은 삶과 죽음의 노정에 있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집은 늘 마음에 거(居)하지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의 아름다움은 정신의 화롯불에서 피어나지 육감에서 비롯하지 아니한다.

이상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집안에서나 집밖에서나 늘 집이 없는 부랑자로 살아간다. 집을 짓고자 하나 재산을 짓고, 집을 가지고자 하나 허영을 가지고, 집을 만들고자 하나 이념을 만들고, 집에 거하고자 하나 자만에 거하고, 집안에 안식코자 하나 자아 안에 머문다.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탐문해 가는 마음의 집이 아니라, 보고 보이며 현시하고 정복하며 주장하고 드러내는 육신의 집을 짓는다. 그리하

fundamental presence. If a house has a meaning above its physical properties, it would be in the secrets of this kind of existence. And that is why a house is the pass way in seeing the world and the doorway towards nature. Isn't the house that very place where we harvest the tired human body that has been tortured through life all along? The place where we refill the sense of emptiness, where we reminisce the forgotten world so far away, and then finally discover the sincerity of life. Is not this what should be of a house? The house lies together with human on a road connecting life and death. This is why the house is a subject to the human mind, not the human body, and, the beauty of a house blossoms from mental imaginations, not from the sensualities of flesh.

Iidiosyncratic. Either inside or outside the house we always seem to be homeless. We wish for a home but seek property, we wish to build a house but make an ideology, we wish to live in a house but reside in arrogance, we wish to rest in a house but remain in ego. We should build a house of the mind that inquires why we live and how we should, but instead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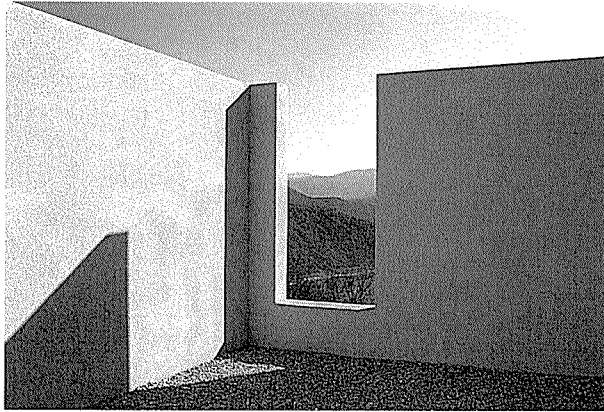
수졸당 평면스케치

여 드디어 자아라는 또아리를 틀 단단한 껍질을 만든다. 다들 집을 짓기보다 자신을 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짓고도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집안에 살면서도 집밖을 서성이고 있다.

내가 보기에 차라리 수졸당이 더 나은 것 같다. 설령 과도한 문 구조물이며, 연극 세트 같은 공간이며, 어중간한 복도며, 전시장 같은 거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아(閑雅)한 긴장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다. 살다가 손 불 여지들도 좀 남아 있다. 그만큼 수졸(守拙)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틈바구니에서 긴 한숨과 고요함과 기다림의 순간들을, 마음만 먹으면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비해 수백당이 모자란다면 아마 덩어리의 크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매스를 손가락처럼 벌일 수밖에 없는 근거의 모호함에서부터 앞에 단을 두어 틀을 친 것이나 뒤에 계단을 두고 응달의 마당을 마련한 바로 그 모양새에 이르기까지 온통 작위적이며 거북함이 배어 있다. 줄지에 등장한 철골 틀이나 단순한 계단을 위해 받친 철골 동아리도 어색하다. 옥상의 돌들이 수상하고 배수의 드라마를 위

house of the flesh that sees, shows, reveals, conquers and insists, is built. So, at last, the ego is covered with a shell harder than steel. Everyone is trying to build themselves, not a house. That's why we cannot possess the house we ourselves have built. Though we live inside the house we are wandering outside.

In my point of view Seung's before work, Sujol-dang, seems much better. Even though its defects, the excessive door structure, the artificial stage like space, the ambiguous hallways and the exhibition hall like living room, it still pertains an elegant tension and has some room for improvement. As the name Sujol says, it stands as a house with modesty. Also it has the ability to catch the moments of serenity, anticipation and sighs of the city. Maybe it's the size of the mass that makes Subaek-dang somewhat inferior to its predecessor. The vague reason for spreading the masses as if they were fingers, framing the building by placing a platform in the front, the placing of the stair in the back and the way the shady court is set. They are all so artificial and uncomfortable. The suddenly appearing steel frame and the steel part supporting a simple stair



한 돌 받침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어 귀하지 아니하다. 도대체 어느 땅 조각 하나 투명함으로 남아 있는 곳이 없고, 안온함으로 채운 곳이 없다. 그러나 한 쪽 구석에 밀쳐둔 사랑방이 오히려 아름답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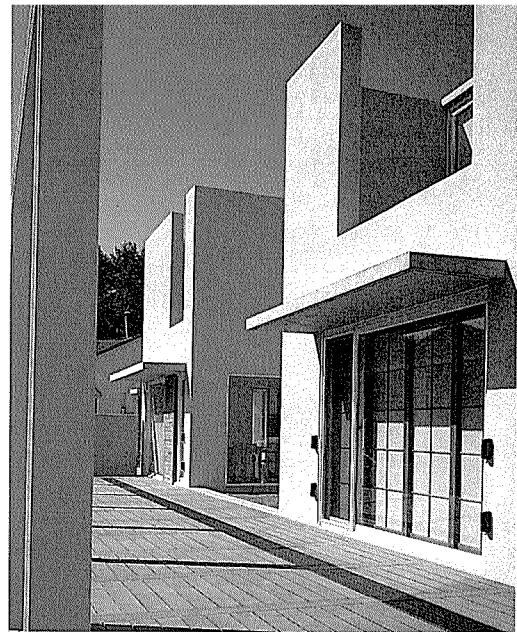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세속에 정주하기 위해 스스로 연출한 과장과 허식의 자태를 벗어버린 채 청량(淸朗)한 하늘을 보며 야생(野生)의 대지에 누워, 고요히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온갖 삶의 때를 벗어 마침내 순수한 존재(Pure Being) 곧 무(無, Nothingness)로 귀환하기 위한 여정이 아닐까? 시(時)가 마치 말의 사원이듯 집은 곧 우리 살이들의 기쁨이 아닐까? 그렇다면, 집이란 곧 다시 환속할 수 있는 도량을 키우는 터가 아닐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함에 이르는 연습이요 실천의 방편이지 않을까? 혹은 구체적인 자기확인이 아닐까?

수백당은 곱고 아름답다. 그런데 수백당이라는 집이 곱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집을 육욕(肉慾)에 기대어 지으면 그만큼이나 다른 것을 잃는 이치 때문

are also awkward. The rocks on the roofs are dubious, and the erratically placed rocks supporting the water route seem vulgar. Not one piece of land is left lucid and calmness is not to be found. As this is so, relatively, the sa-rang-bang(room) driven all the way to the corner rather seems beautiful.

What's the point of living? Isn't it the journey of peeling off the cover of exaggeration and ostentation, we have directed to settle down in a vulgar world, and lay down in the wilderness watching the pure sky, and calmly retrospect oneself, to refine all the filths of life and ultimately return to a pure being, that is, nothingness? As poetry is the temple of words, isn't a house the river of life? It would be possible to say that the house is a space where the generosity needed, to return to nothingness can be broadened. Building a house is the method to train and accomplish this returning, and simultaneously, allows the concrete self affirmation of oneself.

Subaek-dang is charming and beautiful. But the house Subaek-dang is not charming nor beautiful. It is because of the truth, that if a house is built upon the desires of flesh it is apt to



이다. 그리고 건축가가 자신의 자아를 비우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 누구나 집을 소유하고자 욕망(慾望)한다. 그리하여 집을 가진 자는 많다. 그러나 우리 중 진실로 집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진정한 집. 그것은 영혼의 철과 나무와 흙과 불과 물로 짓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집은 작가가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방식으로 현시(顯示)하는 대상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습작의 대상은 결코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당 앞에서 내가 건축가에게, 그리고 집의 의미를 진정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음의 세 구절이다. 사물로부터 '떨어져' 다시 한 번 사물의 진실함을 궁구(窮究)하고자 하는, 그리하여 드디어 고담(枯淡)의 미(美)를 온전히 향수(享受)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妙는 平淡에 있고,

妙는 淺近에 있고,

妙는 一水一石에 있다.

(香館畫 중에서)

lose that much. And when the architect does not desert his ego this is an inevitable consequence. Everybody longs to possess a house, and most have succeeded. But among all of us, who has truly possessed one? What is a true house? Wouldn't that be made with the spirit of steel, wood, soil, water and fire. So a house should not be the object of the architect willing to reveal his/her own world through his/her own ways. Moreover, it should never be a studying case of the architect's interest. The following three phrases is what I wish to say to the architect of Subaek-dang and to all the people who truly wish to find the sincere meaning of a house. To the person who is willing to take a few steps from the matter, and once again pursue the truth lying in the matter, and then at last, enjoy the integrated beauty of candidness.

Excellence lies in the ordinary and the candid
Excellence lies in the frugal and the near
Excellence lies one in water and one in stone